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목주기도 성월 · 전교의 달
제32권 46호(나해) 2012.10.14

[묵상]



계명들을 다 지키며 살아온 '어떤 사람'이,
구원받길 갈망하며 살아온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
선하신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그를 사랑스럽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가진 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돌아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자
가진 게 많았던 그는 슬퍼하며 떠나갑니다.

부(富)는 하느님의 축복으로 여겨왔기에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부자여서 불가능하고 가난해서 유리한가?
의아해하는 제자들의 시선을 바꾸십니다.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구원은 내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해도,
내가 가진 것을 다 나누었다 해도
그것 때문에 구원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일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구원하시는 일이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 桓 -

martinlee0501@hanmail.net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식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들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울프레아(4째주)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소년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전 9:0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메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재대회 -행사의 날 4째주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티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밥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코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유승례 아가다
특전미사	(생)박지영 레지나 & 김민중 유스티노
주 일	(연)신림순 알나, 이경용 야고보, 고준희 제임스, 김풍길 바오로, 박영준 안토니오, 유정현 헬레나, 한병열 토마스, 송봉규 요셉, 송광량 카타리나, 김민주 안나, 김원태 바오로 & 김영선 바오로, 김성학
낮 미사	(생)영화가보라 프란치스코, 김명숙 루실라, 이윤조 클라라, 이강신 보나파시오 & 오일주, 김윤형, 김경희 미카엘라, 김광자, 이정수 헬레나 가정, 김복희 로사리아, 최옥희 테레사 & 최기남 야고보 가정, 토런스 서구역1반가정, 권영환 프란치스코 & 최효진 베로니카, 전시웅 요한, 사도들의 도후pr.가정, 박민수 프란치스코, 이상철 크리스토퍼 & 이희경 크리스티나 가정, 이준석 노엘 & 권지선, 김지애 크리스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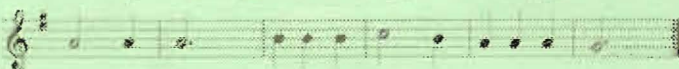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지혜서(Wisdom) 7,7-11

화답송 ○주님,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가 기뻐하리이다.



주 님 당 신 자 애 로 저희를 채 워



주 소 서 저희가 기 뻐 하 리 이 다

○저희 날수를 헤아리도록 가르치소서.
저희 마음이 슬기를 얻으리이다. 돌아오소서, 주님,
언제까지리이까? 당신 종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아침에 당신 자애로 저희를 채워주소서.
저희는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리이다.
저희가 비참했던 그 날수만큼, 불행했던
그 헛수만큼 저희를 기쁘게 하소서.○
○당신 하신 일을 당신 종들에게, 당신 영광을
그 자손들 위에 드러내소서. 주 하느님의 어지심을
저희 위에 내리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주소서.
저희 손이 하는 일에 힘을 실어 주소서.○

제 2독서 히브리서(Hebrews) 4,12-13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 음 마르코(Mark) 10,17-30<또는 10,17-27>

영성체송 부자들도 공생해져 굶주리게 되지만,
주님을 찾는 이에게는 좋은 것뿐이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입당	주 찬양합니다	191	191
봉헌	364	255	269
성체	나의 영혼이 잠잠히	289	282
파견	기뻐하며 왕께	195	231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2부 교회 안의 말씀

“그분께서는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에게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권한을 주셨다” (요한 1,12)

전례, 하느님 말씀의 특전적 장소

말씀의 선포와 독서자의 직무

그러한 임무를 맡은 독서자들은, 독서직을 받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참으로 적합한 이들이고 잘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에는 성경 교육, 전례 교육, 기술적 교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경 교육으로 독서자들이 삶의 맥락에서 독서들을 이해하고 믿음의 빛으로 밝혀진 선포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전례 교육으로 독서자들이 말씀 전례의 구조와 의미를 이해하고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의 근본 관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 기술적인 준비로 독서자들은 육성으로 하든 현대적인 확성기의 도움을 받은 백성 앞에서 공적으로 낭독하기에 합당한 기술을 갖춘다.”

강론의 중요성

59). 하느님 백성의 각 구성원들에게는, “하느님 말씀과 관련하여 각자가 맡은 직무와 임무도 다릅니다. 신자들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오로지 거룩한 서품으로 가르치는 직무를 받은 이들이나 그 봉사 직무를 실행하도록 위임받은 이들만”, 곧 주교, 신부, 부제들만 “하느님 말씀을 풀이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계 주교대의원 회의가 강론이라는 주제에 주의를 기울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황 권고 ‘사랑의 성사’에서 저는 이렇게 지적하였습니다. “하느님 말씀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면 강론은 질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강론은 ‘전례 행위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강론은 하느님 말씀이 신자들의 삶에서 더욱 깊이 이해되고 힘을 발휘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강론은 성경의 메시지를 현실화함으로써 신자들이 자신의 삶의 오늘 안에서 하느님 말씀의 현존과 그 활동을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강론은 거행되는 신비를 이해하도록 이끌고 사명으로 초대하는 것이어야 하며, 회중들에게 신앙 고백과 보편 지향 기도, 그리고 성찬 전례를 준비시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유한 직무에 의하여 설교를 맡은 이들은 참으로 이 임무를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 말씀의 단순함을 가리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강론이나, 복음 메시지의 핵심보다 설교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는 쓸데없는 빚나감을 피해야 합니다. 설교자에게 중요한 것은 모든 강론의 중심이 되셔야 하는 그리스도를 보여 주는 것임이 신자들에게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성경 본문과 친밀해야 하고 꾸준히 그 본문을 접해야 합니다. <◆계속>

예수님을 따르는 길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을상이 되어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마르 10,22)

예수님은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참으로 어렵다는 말씀과 연결 지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버린다는 것은 새로운 것으로 채워진다는 희망을 내포합니다. 곧, 버림은 채워짐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전에 말았던 일들을 버리고 친근한 사람들을 떠나야만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전에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갖지 못하고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오랫동안 몹시 마음이 아픕니다. 친근했던 과거로부터 해방되려고 노력하지만, 마음과 감정까지도 떠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고 미래에 관해서 흥미를 갖게 되지만, 여전히 사람들과의 친밀한 우정과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망은 역설적으로 새로운 일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서는 혼동을 주는 시기지만, 이것을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것에서 벗어나서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향해 줄달음질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뒤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이제 새 일을 시작하였기 때문입니다.

너무 자주 사람들은 즐거워했던 것들 그러나 지금은 이미 사라져 버린 어떤 것들 때문에 즐거움을 놓칩니다. 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유

감스런 일이지만,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현재에 살아가는 것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 뒤에 있었던 과거를 봉헌하고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에 일치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필리 3,13-14). 하느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음에 감사하면서 손에 쥘 것을 잡고 한때 있었던 그리고 다시 있지 않을 것에 대해 뒤돌아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쟁기에 손을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느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루카 9,62)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우리가 과거에 살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느님은 비록 우리가 지나간 날들과 똑같이 모든 것을 되돌리고 재창조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똑같아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때는 그때이고 지금은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사람으로 현재의 하느님을 이해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문종원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구로2동성당 주임

이번주 전례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이은지 수산나	김숙희 유소사세실리아	이진향 아네스
제1독서자	박민환 미카엘	박진수 스테파노	모은기 다두
제2독서자	최보나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P.V. 3반

다음주 전례봉사자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례 테레사	채승희 에스터
제1독서자	이범주 다니엘	이민상 요한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목주기도를 바칩시다.

10월

10월은 '목주기도 성월'이며 '전교의 달'입니다. 목주기도 성월은 개인과 가정 성화, 인류구원과 세계평화를 위하여 목주기도

를 바치는 달로, '목주 기도 성월 기도문'을 바쳐주시기 바랍니다.

◆ 전교주일 2차헌금 : 10월21일(20일 특전미사 포함)

- 10월20/21일(연중 제29주일)은 '전교 주일'로 선교지역을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교회는 1926년부터 전교사업에 종사하는 선교사들과 전교지역 교회를 돕고자 전교주일을 정했습니다. 교회 본연의 사명이 선교에 있음을 일깨우고, 세상곳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하며 선교사들을 격려합니다. 전교주일 특별헌금은 '교황청 전교회'를 통해 세계 전교지역 교회를 돕는데 쓰입니다.

◆ 미사전례에 관한 신자 재교육 및 예비자교리

- 이번주 교리시간(18일 목요일 저녁미사후)에는 미사 전례에 관한 공부를 합니다. 신자재교육 차원에서 마련된 이 교리시간에 교우들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티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이영석 크리스토퍼 복음화분과장 ☎(310)796-6960

◆ 요셉회 미션 방문

- 일시 : 10월20일(토) 오전 8시 성당 출발
- 장소 : 산타바바라 미션
- 회비 : \$15(1인), \$20(부부)
- 문의 : 요셉회장 김대우 비오 ☎(310)920-7647

◆ 개정된 메디케어 건강보험/올바른 장례준비 강의

- 일시 : 10월21일(주일) 오후 1시
- 장소 : 성전
- 강사 : 이정훈 안셀모
- 문의 : 사회복지분과장 차인수 안드레아 ☎(310)256-6001

◆ 본당 어르신 온천 효도관광

- 일시 : 10월30일(화) 오전 7시10분까지 성당집합
- 장소 :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회비 : \$20(1인), \$30(부부, 가족2인 동반시)
- 신청 : 10월16일(화)까지, 55세이상 선착순 45명
- 준비물 : 수영복, 따뜻한 겉옷, 타올 * 주관 : 안나희

◆ 글로리아 성가대 단원 모집

성가는 하느님을 찬미하는 숭고한 기도입니다. 하느님께 올리는 합창의 기도에 나의 목소리도 합쳐서 올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새 단원을 초대합니다.

- 대상 :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교우
- 문의 : 지휘자 민원희 안나 ☎(310)634-9631

◆ 상본 콜링(전화)카드 판매

- 상본(성모님) 콜링카드(전화카드) : \$20
- 한글-영어 합본 상장예식서 : \$15 *사무실에서 판매

◆ 미주가톨릭 방송(KCBC) 방송시간 안내

- 매주 토요일 저녁 7시~9시 라디오서울(AM 1650)
- 매주 일요일 아침 6시~8시 우리방송(AM 1230)
- 방송국 주소 : LA 3435 Wilshire Bl. #2780
☎(213)220-1245

◆ 본당 시설물은 우리 모두의 것, 관리를 잘 합니다.

강당, 회의실과 유아실, 2층 모든 교실을 사용한 후 비품을 원래 놓여있던 모양대로 제자리에 놓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히 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합니다. 성당 시설물은 한 두사람의 손길로 관리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우 모든 분들의 관심있는 손길을 타약합니다. 특히 마지막에 성당을 나가는 모임의 책임자들은 문단속(현관문+바깥Gate)을 꼼꼼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10월14일(주일) : 토런스 북구역(회덮밥 \$3)
주일학교(9학년) 콩나물 김치밥
- 10월21일(주일) : P.V. 1반(육개장 \$3)
주일학교(8학년) 하이라이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인모	구자운	금영도	김기정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영경	김영길	김옥보	김옥찬	김원모	김 은	김일선
	김정엽	김정웅	김학겸	김현숙	남성철	노천수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선희	박씨니	박인식	박현주
	방정복	배태일	석순영	소성덕	송기철	송재훈	안민수
	안태갑	엄정자	오수인	오신재	오일손	유영균	이근모
	이명자	이병우	이상석	이상철	이은록	이일길	이재용
	이형삼	장영우	전시웅	전정일	정연영	정정현	정혜영
	주용순	지경수	최상만	최태훈	하양숙	황인중	황학수
	합계 : \$5,260						
미사헌금 : \$2,416	2차헌금 : \$956						
성전헌금	강인모	구자운	금영도	김기정	김선제	김양금	김영길
	김옥보	김원모	김정엽	김현숙	남성철	노천수	노혜숙
	모은기	민기남	박광자	박선희	박씨니	박인식	박현주
	방정복	석순영	소성덕	송기철	안민수	안태갑	엄정자
	오수인	유영균	이근모	이명자	이병우	이상석	이상철
	이은록	이형삼	장영우	전정일	정정현	정혜영	지경수
	최상만	최태훈	하양숙	황인중			
	합계 : \$3,120						

공지사항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자모회와 한국학교 기금모금 바자회

- 수거품목 : 할로윈의상, 추수감사절 장식소품, 어린이용 파티드레스&양복, 신발(사용치않는 깨끗한 상태의 물건)
- 수거일시 : 10/14(오늘주일) 미사후 친교장
- 바자일시 : 10월21일 주일학생미사후 친교장
- 문의 : 장주란 마리아 자모회 부회장 ☎(310)486-1982
- 교우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바랍니다.☺

주일학교 백투스쿨 데이

- 일정 : 10월14일(오늘주일) 중등부(6~8학년), 10월21일 고등부(9~12학년)
- 시간 : 주일학생미사 후 10시30분~11시30분(수업시간중)
- 장소 : 각학년 교실
- 대상 : 주일학교 학부모, 적극적인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이인석 비오 주일학교 교장 ☎(213)258-8665

주일학교 Lock-In

- 일시 : 10월19(금) 오후 7시~20일(토) 오전 11:00
- 대상 : 6~12학년
- 장소 : 성당
- 준비물 : 슬리핑백, 세면도구, 독주
- 문의 : 박윤희 스테파니아 행사담당교사 ☎ (310)613-9116

남가주 소식

아그네스 성당 커피교육 안내

- 일시 : 10월15일(월) 오후 1시, 18일(목) 오후 6시30분
- 교육내용 : 커피 입문과 드립커피 이론 및 실기교육
- 지도 : 최대제 신부
- 수강료 : \$200
- 신청 : 아그네스 성당 사무실 ☎(323)731-4433

KCLC 4박5일 영신수련 침묵 피정

- 일시 : 10월17일(수)~21일(주일)
- 지도 : 배영길 신부(예수회)
- 참가비 : \$450(독방) * 마감 10월10일
- 주최 : 한인그리스도인 생활공동체(KCLC)
- 장소 : 매리우드 피정센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하세실리아 (323)578-2230

공동체 후원을 위한 '1일 점심과 차'

- 일시 : 10월20일(토) 오전 11시~오후 2시
- 장소 : LA 작은 예수회 장애시설(1137 Arapahoe St. + 올림픽)
- 메뉴 : 해물칼국수
- 행사내용 : 새로 바뀐 메디칼과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과 개인 건강상담도 합니다.
- 거라지세일 :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
- 문의 : ☎(213)820-6535 김윤희 소화테레사 수녀

소공동체 10월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배태임 안나 781-9199 10/13(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김막달레나, 욕울리아 539-3377 10/13(토) 오후 7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10/12(금)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주량 요한 989-0366 10/2(화) 오후 7시 <u>반미사</u>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명렬 라파엘 749-0276 10/23(화) 오후 7시 <u>반미사</u>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10/17(수) 오전 10시30분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1	오창애 안나 974-2857	임순 데레사 974-2857 10/19(금) 오후 7시30분 성당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경수 헬레나 634-6923 10/11(목) 오전 11시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10/20(토) 오후 6시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10/13(토) 오후 7시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1/2	주영애 젤마 818-640-3656	이병우 마리아노 784-0585 10/9(화) 오후 7시 <u>반미사</u>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P. V. 김명재 아가다	1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남경희 베네딕타 384-3289 10/21(주일) 낮 12시 성당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금영도 베드로 482-9108 10/12(금) 오후 7시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이영석 크리스토퍼 377-7063 10/12(금) 오후 7시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김인숙 안젤라 617-3568 10/9(화) 오전 10시30분

이번 주 단체 모임

제단체 모임의 날	
-----------	--

다음주 단체모임

사목회장단모임	오후 1시
---------	-------

‘신앙의 해’와 새로운 복음

- 내가 참으로 믿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

교형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12년 10월 11일부터 시작하여 2013년 11월 24일 그리스도 왕 대축일까지 계속될 “신앙의 해”를 지내며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해의 근본 취지는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서 신앙의 열기를 다시 불러일으키고, 나 자신에서 시작하여 교회 구성원 하나하나가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도적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남미 선교 50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하신 강론에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이 대륙의 복음화 500주년을 기념하는 일이 정말 의미를 지니려면, 주교 여러분이 각자 소속 사제와 신자들과 더불어 새로운 각오와 헌신으로 복음화 사명을 받아들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재-복음화가 아니라 새-복음화여야 합니다. 열정에서, 방법에서, 그리고 표현에서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와서 교회의 문헌들은 그리스도 신앙을 두고 “몇 가지 추상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일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임”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길은 어떤 교리나 문헌 연구보다 먼저 하느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연구는 하느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난 다음의 일입니다. “주교는 자기의 사제들과 함께, 신앙 공동체 구성원 하나하나처럼, 더 나아가 교회 자체가 그런 것과 같이, 남에게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는 태아가 엄마의 태 안에서 보호도 받고 영양분을 섭취하듯이, 말씀 속에 들어가 거기에서 보호도 받고 영양분을 섭취해야 한다.”(“주님의 말씀”, 79항) ‘사람이 되신 말씀’(요한 1,14 참조)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요한 6, 56-58) 전례, 특히 성체성사는 바로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그분 안에서 살게 해주는 성사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들은 서로를 보충하는 말씀과 성체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모양이 다르지만 실제로는 똑

같은 말씀으로서 서로 떼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열두 제자에게,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하고 물으셨을 때 시몬 베드로가 한 대답이 그것을 잘 말해 줍니다.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요한 6,66-68)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 “만물을 당신의 강력한 말씀으로 지탱”(히브 1,3)하시는 분을 내 안에 모시면, 바오로 사도를 두고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가 하신 말씀이 나에게도 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입을 열면 예수님이 튀어나오신다.”

신앙의 해, 새로운 복음화라는 화두를 받아들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교회에서 권고하는 것 가운데에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을 연구하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공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동안에도 나름대로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신앙의 해에 특별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직도 막연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가지 공부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가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살아 있는 신앙을 찾거나 되찾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는 “첫 선포”, 곧 복음을 직접 듣고 “마음이 꿰뚫리듯 아파하며”(사도 2,37)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고 간절히 찾는 심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차분히 앉아서 하는 문헌 연구나 교리 공부나 제 구실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뜨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으면, “사랑으로 행동하는 믿음”(갈라 5,6)은 이웃 섬기기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도단의 일원이 되어 주님의 당부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18-20)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복음화위원회 위원장 이병호 주교

